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총괄 요약표

평가 범주	지 표 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난이도	득점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사회공헌					
	(1) 국민평가(국민체감도 제외)			2		1.876
	(2) 정부 3.0			1.5		1.121
	(3) 경영정보공시 점검			1.5		1.500
	(4) 정부권장정책			5		4.663
	2. 업무효율					
	(1) 사업수행효율성			5		3.244
	3. 재무예산관리 및 성과					
	(1) 재무예산성과					
	㉔ 사업비집행률			1		1.000
	(2) 계량관리업무비			6		6.000
	4.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1.5	D ⁺			
	㉔ 임금피크제 운영의 적절성	1.5	B ⁰			
주요 사업	(2) 총인건비 인상률			3		3.000
	(3) 노사관리	2	D ⁰			
	1.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0	B ⁰			
	2. 청소년의 역량개발 및 건강 성장 지원					
	(1)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효과성 향상 성과			6	양호	5.400
	(2) 청소년지도자 전문성 제고 성과			3	양호	2.700
	3.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청소년활동 확산					
	(1) 청소년활동 신뢰성 향상 성과			4	양호	2.408
	(2) 청소년수련활동 안전성 강화 성과			3	우수	2.665
	4.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활동참여 지원 확대					
	(1) 자기주도 청소년활동 참여 성과			4	우수	4.000
전체 합계		15		45		
가산점		임금피크제: 0.400				

1 경영관리

① 경영전략 및 사회공헌

(1) 국민평가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고객만족도결과 +상대등급별점수	목표부여	100	87.822	93.822	2	1.876

나. 평가내용

- 공기업·준정부기관 고객만족도에 대한 평가로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실시한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평가하였고 평점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와 상대등급별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하였다.
- 고객만족도 지수와 상대등급별 점수를 합산한 평점은 93.822점, 최종득점 1.876점을 획득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

- 고객만족도 점수는 전년도 대비 1.89점 상승한 87.822점을 획득하였다. 조사방식이 고객방문조사에서 유선조사방식으로 변경되었고, 이에 대한 기관의 적극적인 대응 노력으로 전년도 대비 상승하였다.

라. 추세분석

- 고객만족도 지수는 2011년 85.0점, 2012년 85.2점, 2013년 84.9점, 2014년 85.9점, 2015년 87.8점으로 전년도 대비 상승하였다.

(2) 정부 3.0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공공기관 정부 3.0 평가결과	목표부여	100	74.700	74.700	1.500	1.121

나. 평가내용

- 정부3.0 체감성과 창출 촉진을 위해 추진역량 및 중점과제 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행정자치부에서 평가한 결과를 활용하여 평가하였다. '15년 기관의 정부3.0 평가 결과는 평점 74.700점으로 득점 1.121점을 획득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

- 정부3.0 추진역량 및 중점과제 성과(3대 목표: 서비스 정부·유능한 정부·투명한 정부)를 세분화 한 9개 세부지표를 통해 기관의 정부3.0 이행 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세부적으로는 일하는 방식 혁신 및 사전정보공표 운영노력도 등은 대상기관 평균보다 높은 실적을 기록하였으나, 기관 간 협업 사례, 공공 데이터 개방 사례 등은 대상기관 평균보다 다소 낮은 실적을 기록하였다.

라. 추세분석

- 2015년도 신규 도입된 지표이다.

(3) 경영정보공시 점검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경영정보공시 일제점검 결과	목표부여	100	100	100	1.500	1.500

나. 평가내용

-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시하는 자료의 정확성 및 적시성 등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정보공시(알리오) 일제점검 결과 0점의 벌점이 부과되었고, 구간별 득점기준에 따라 가중치 1.5점 중 1.5점을 획득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

- 경영공시 무벌점기관 달성을 위해 경영공시 검증단계 확대 및 불성실공시 사전예방강화 등 기관차원의 노력으로 벌점은 0점이다.

라. 추세분석

- 2014년도 경영공시 일제점검에서는 15점의 벌점을 받았으나 2015년도에는 벌점 0점으로 전년도 대비 100% 향상된 실적을 기록하였다.

(4) 정부권장정책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	목표부여	100	93.260	93.260	5	4.663

나. 평가내용

- 법령상 의무권장사항 및 주요 국가정책사업 등의 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 항목에 대해 항목별로 해당 부처별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4.663점을 득점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

지표명	가중치	평점	득점
1. 청년미취업자 고용실적	1.2	90.652	1.088
2.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	0.3	60	0.180
3. 장애인 의무고용	0.3	100	0.300
4. 국가유공자 우선채용	0.3	100	0.300
5. 중소기업제품 등 우선구매	2.2	99	2.178
- 중소기업제품	1.0	100	1.000
- 기술개발제품	0.2	89.080	0.178
- 여성기업제품	0.2	100	0.200
-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생산품 및 서비스	0.2	100	0.200
- 중증장애인 생산품	0.2	100	0.200
-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생산품	0.2	100	0.200
- 녹색제품	0.2	100	0.200
6.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구매	0.5	100	0.500
7.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실적	0.2	58.334	0.117
계	5.00		4.663

- 장애인 의무고용, 국가유공자 우선채용,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구매 등은 부처 평가결과 목표치 이상의 실적을 달성하여 만점을 획득하였다.
- 청년미취업자 고용실적은 다소 미흡한 90.652%의 달성률을 기록하였고,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과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실적은 각각 60%, 58.334%의 달성률로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였다.
- 중소기업제품 등 우선구매 세부항목에서도 중소기업제품, 여성기업제품,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생산품 및 서비스, 중증장애인 생산품,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생산품, 녹색제품은 부처평가결과 만점을 획득하였으나 기술개발제품은 89.080%의 다소 미흡한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라. 추세분석

- 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은 2011년 가중치 5점 기준에 4.420점, 2012년은 4.779점, 2013년 4.404점, 2014년 4.769점으로 등락이 있었고 2015년은 4.663점으로 전년도 대비 다소 하락하였다.

② 업무효율

(1) 사업수행효율성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순사업비/평균인원	목표부여 (편차)	최고 : 63,592,752 최저 : 41,994,672	54,112,165	64.884	5	3.244

나. 평가내용

- 기관의 효율적인 사업수행효율성 향상을 유도하는 지표로서 순사업비를 평균인원으로 나눈 실적을 목표부여(편차)로 평가하였다.
- 2015년 기관의 사업수행효율성의 실적치는 54,112천원으로 평점 64.884점과 득점 3.244점을 획득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

- 순사업비는 지원사업수익이 29%(5,890백만원) 증가하는 등 매출액 증가로, 전년도 대비 3.515% 증가한 18,723백만원을 기록하였다.
- 평균인원은 2015년 4월 출범한 청소년활동안전센터 등 조직 확대에 의해 전년도 대비 7.879% 증가한 346명을 기록하였다.
- 순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다소 증가하였으나 평균인원이 더 큰 폭으로 확대되었고, 이에 실적치가 전년도 대비 4.045% 감소하게 되어 득점도 전년도 대비 18.738% (3.992점→3.244점) 하락하였다.

라. 추세분석

- 1인당 순사업비(순사업비를 평균인원으로 나눈 실적)는 2012년 48백만원, 2013년 65백만원, 2014년은 56백만원이고, 2015년은 전년도 대비 4.04% 하락한 54백만원을 기록하였다.

③ 재무예산관리 및 성과

(1) 재무예산성과

㉠ 사업비집행률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사업비집행액/ 사업비예산현액	목표대실적	100	100	100	1	1.000

나. 평가내용

- 기관의 합리적인 사업비 집행에 대한 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사업비 예산현액 대비 사업비집행액을 목표대실적 방식으로 평가하였다.
- 2015년 사업비 집행률은 100%를 달성하여 1점 만점을 획득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

- 2015년 재무예산성과는 사업비 예산현액 25,758백만원에서 낙찰차액 및 자체 절감액 836백만원을 차감한 금액 24,922백만원 중 25,082백만원을 집행하여 예산집행률 100.641%로 최종적으로 1점 만점을 획득하였다.

라. 추세분석

- 사업비집행률은 2011년 99.203%, 2012년 97.685%, 2013년 97.170%, 2014년 99.299%이며 2015년은 100%로 전년도 대비 0.701%p 상승하였다.

(2) 계량관리업무비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관리업무비/ 매출액	목표부여 (편차)	최고 : 0.326 최저 : 0.459	0.303	100	6	6.000

나. 평가내용

- 적정수준의 관리업무비 관리노력을 유도하는 지표로서 관리업무비 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누어 목표부여(편차)로 평가하였다.
- 2015년 계량관리업무비는 실적 0.303으로 평점 100점을 기록하여 가중치 6점 만점을 획득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

- 2015년 사업비와 판관비가 전년도 대비 26.228% 증가하였음에도, 방만경영 개선과제 중 자율개선과제(15개)를 모두 이행하는 등 전사적 노력을 통해 관리업무비 총액이 전년도 대비 3.460% 감소한 13,515백만원을 기록하였다.
- 또한, 지원사업수익의 증가에 따라 매출액도 전년도 대비 19.254% 증가한 44,602백만원을 기록하여, 계량관리업무비 실적이 0.303으로 전년도 의 0.374에 비해 개선되었다.

라. 추세분석

- 관리업무비 총액은 2012년 11,452백만원, 2013년 10,030백만원, 2014년 13,999백만원, 2015년 13,515백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다소 감소하였다.
- 매출액은 2012년 27,141백만원, 2013년 31,976백만원, 2014년 37,401백만원, 2015년 44,602백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4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 기관은 비보직자의 성과급 차등폭을 점차 확대할 것이라는 계획만 있을 뿐 전체적으로 2배 미만이라는 전년도 지적에 대해, 비간부직 성과급 차등폭을 2014년 1.5배에서 2015년 1.8배로 확대한 바 이러한 개선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기관은 직무급이 단순한 직급 차이로 직무급을 설치하고, 2015년부터 전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급을 도입할 계획만 제시하고 있다는 전년도 지적에 대해, 직무급을 직무의 영향도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4개 직무급을 개발·적용하고, 비간부직 직무급을 본격적으로 적용하는 등 개선 노력을 기울인 바 이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기관은 평균임금에서 경영평가 성과급을 제외하고, 수당의 축소와 추가수당 신설도 없으며, 간부직의 수당비중도 5.9%로서 최소화하는 등 보수체계 단순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전 직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비간부직에 대한 직무급 도입도 직무가치 분석을 통해 시행하기 시작하며, 기본연봉차등, 성과연봉 비중 21.8%, 성과연봉차등폭 2.1배, 전체성과연봉차등폭 25.0% 등으로서 모두 정부권고기준에 부합하고, 직무급도 동일직급 3등급이상으로 구축하고 성과직무임금체계 확대 노력이 높이 평가된다.
- 다만, 기관은 전직원 성과연봉제와 직무급제 도입을 통해 간부직에 대해서는 수당 비중을 최소화되도록 하고 있지만 비간부직에 대해서는 수당비중이 16.1%에 달하여 보수체계 단순화를 위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기관은 비록 간부직 성과연봉비중이 권고기준에는 부합하지만, 2014년 22.5%에서 2015년 21.8%로 다소 축소되었고 이는 2015년 경평 등급변화에 따라 성과급지급률 20% 감소에 따른 일시적 하락현상이라고는 하나 성과연봉 확대 노력 경향에는 반하는 것이므로 이를 개선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기관은 전직원 성과연봉제 도입 필요성이 고조되는 환경에서 비간부직 성과연봉비중이 15.7%, 전체연봉차등폭이 19.6%에 머무는 등 정부권고기준에 다소 미달하므로 보다 적극적인 성과연봉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기관은 2014년 경영평가에서 방만경영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 위원회의 실질적 성과가 미흡하며 정상화 추진을 위한 시스템 재구축과 방만경영 해소를 위한 전략 수립 과정 및 실행과정에서 직원들의 의견 및 불만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방만경영 정상화 과제 도출 및 실행을 위하여 비상대책위원회, 노사선진화위원회를 중심으로 모니터링 및 환류체계를 재정비 하였으며, 방만경영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순회 간담회를 실시하고 노사선진화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였으며 지역별 직원들의 의견과 불만사항을 직접 반영하기 위해 전직원 대상의 설문 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개선 노력을 한 점은 인정된다.
- 기관은 전년도에 긴박한 경영상 사유로 해고를 할 때 적어도 50일 이전에 조합과 합의하도록 하는 내용,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신체적 질환이 발견되었을 경우 의사 진단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 휴직 사유로 기타 노사가 합의한 경우를 인정하고 개별적 사정을 감안해 그 기간을 결정하는 내용 등 단체협약, 내부 규정에 있어 다수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나 대부분의 내용을 개정하여 방만경영 정상화를 위한 개선 노력을 기하였다.
- 다만, 개원 기념일을 유급휴일로 하는 정하는 내용, 2015년 취업규칙을 개정하면서 국경일에 관한 법률상의 국경일을 추가한 부분, 단체협약에서 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시간을 무조건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내용 등은 방만경영 정상화 차원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또한, 비위행위자에 대하여 실제로도 명예퇴직을 제한하고 그 퇴직금을 실질적으로 감액 할 수 있는 제도 운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관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다.
- 기관은 2015년10월28일 전직원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노사합의서를 체결하

여 정년보장형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정년 이전 3년간 각각 10%, 15%, 20%의 임금을 감액하도록 하였다.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2020년까지 별도 정원 채용자수는 2명이며, 자체적으로 목표 3명을 추가로 설정하여 신규 고용창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임금피크 적용 대상자를 위한 8개의 전환직무를 개발하고 기본적인 직무정의서를 마련하였으며, 전환자를 직무전환직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MBO 업적평가를 실시하는 내용의 인사평가 지침을 규정화 하였다.

- 다만, 임금피크제 운영지침이 제정되었으나 전반적으로 임금피크제와 연관된 제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며, 기관이 임금피크 적용 예정 직원에 대하여 퇴직금 제도의 DC형 전환을 통한 불이익 해소 방안을 설명 하였으나 이와 관련한 규정의 명문화가 필요하며, 3개월간의 전직지원 제도 신설과 임금피크제 대상자에 대한 명예퇴직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임금피크제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적절한 운영 방안의 마련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보수 및 복리후생을 위한 기관의 노력을 “D⁺”(임금피크제 운영의 적절성은 “B⁰”)로 평가한다.

(2) 총인건비 인상률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정부예산편성지침	목표부여	5.3%	5.033%	100	3	3.000

나. 평가내용

- 정부예산편성지침의 인건비인상률 준수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서 2015년 정부의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 5.3% 준수 여부를 목표부여로 평가하였다.

- 2015년 총인건비인상률은 5.033%로 정부의 인상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평점 100점으로 3점 만점을 획득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

- 정부 임금인상 상한 범위 내 인건비 5.033% 인상과 정원범위 내의 현원관리, 불필요한 복리후생비 인상억제 등의 관리를 통하여 정부인상률 가이드라인 5.3% 범위 내에서 총인건비를 인상하였다.

라. 추세 분석

- 총인건비인상률은 2011년 4.825%, 2012년 2.200%, 2013년 3.238%로, 2014년 1.373%, 2015년 5.033%로 정부의 인상률 목표치 이내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3) 노사관리

- 기관은 노사관계 선진화 추진전략 성과지표 달성도를 차년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점검 및 환류 체계가 필요하다는 전년도 지적에 대해, 연도별 성과지표를 관리하면서 환류하는 과정을 구축하려고 한 바 이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노사관계 전략 개발 및 분석 과정에서 대외 전문가와의 협업 성과와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노사관계 시스템 구축이 미흡하다는 전년도 지적에 대해, 전략 분석에서 개발, 실행, 환류까지 단계별로 노무사 자문회의와 유관기관 노무담당자 협의 등 대내외전문가와 협업하고 성과를 도출하고자 노력한 것은 개선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기관은 보다 효과적인 소통채널에 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함으로써 소통채널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전년도 지적에 대하여 소통채널의 효과성 분석을 하고 이를 통해 소통채널별 관리방향을 설정하고자 노력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기관이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에 조합원의 특성과 업무, 지방조직 보유 등과 같은 기관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지 못하고, 노사관계 담당자와 외부 전문가들의 중장기적인 활용체계 및 그 실

적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사업장 분산을 고려한 소통구조 9개를 신설하는 등의 개선 노력과 내부전문가와 외부전문가 그리고 선진 유관기관 등 대내외 전문가 협업체계 구성을 통해 중점현안을 해결한 실적 등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기관은 타기관에 비해 낮은 처우, 방만개선과 단체협약 개선 등 정부정책에 대한 직원들의 피로도도 예상되는 바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내용에서 정책에 부응하는 긍정적인 것 외에 정부정책 추진에 따른 직원들의 불만 등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하여 그 설문 결과를 환류시키는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노사갈등 예방 및 관리시스템의 주요 내용이 조직변화와 사회적 책무 이행을 통해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노사 간 갈등 발생 시 이를 예방 조정할 수 있는 역할과 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기관의 노사실무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하는 갈등 예방 및 조정 프로세스 등이 매뉴얼화 된 체계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 기관은 노사관리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대상별로 자체교육과 외부교육 등으로 계획되어 있지만 주된 교육내용이 노동관계법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바, 노동관계법외에도 소통과 신뢰구축, 노사 간 대화 기법 등이 포함된 전사적 인사노무관리 역량강화 체계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기관이 2014년 경영평가에서 지적된 단체협약 내용 중 교섭대상으로 사회적 책무와 고용보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 내용, 부당징계 등에 대해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당명령 판결문 접수 즉시 당초 징계처분을 취소하도록 정한 내용, 기관이 임시휴일로 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인정하는 내용, 연 6일 범위 안에서 특별휴가를 허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에 대해서 단체협약을 개정하여 개선한 점은 기관의 노력으로 인정된다. 다만, 단체협약 개정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지적 사항인 노동조합 활동자에 대해 그 활동기간 중에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않는다는 내용, 기관의 조직변경 시 조합원의 고용을 보장하는 내용에 대한 내용을 개정하지 않았으며, 단체협약이 개정된 내용 중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 일부 사유에 대하여 횡수와 시

간 제한을 정하지 않은 점 등은 지속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또한, 기관이 단체협약으로 비조합원이 부당노동행위 및 노동조합에 불이익한 행위를 한 경우 조합의 요구에 의해 조사 후 조치내용을 조합에 통보하도록 한 내용은 인사권을 침해할 개연성이 있어 추가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 기관이 경영·인사권을 침해하는 단체협약 내용의 개정을 통한 적법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 확립을 위하여 내·외부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적법성을 확보하고 노조 간부와 수시협의를 진행하고 노사협의회를 6개 사업장별로 운영하는 등 노사 합의 노력을 기한 점은 인정되나, 2015년도에 노사협의회 운영에 있어 회의를 3개월마다 소집하지 않은 점은 관계 법령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는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노사관리를 위한 기관의 노력을 “D⁰”로 평가한다.

2 주요사업

①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 기관은 주요사업으로 2014년에 청소년 역량개발 특화 사업, 청소년활동 안전 강화 사업, 청소년활동 참여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2015년에는 전년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청소년 역량 증진 사업, 청소년활동 안전강화 사업, 청소년활동 참여확산 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였다.
- 주요사업 선정은 4단계의 분석과정을 거쳐 도출되었는데, 이러한 도출과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주요사업 성과와 담당부서 평가를 연계시켜 부서별 책임경영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비계량지표를 보다 다양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의 집행에 관해서는 각 사업별로 다양한 활동이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추진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국립수련시설의 활동성과를 보다 자세히 제시할 필요가 있고, 자원봉사시스템(Dovol)이 지니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관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을 향후에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주요사업별 비계량적 성과는 전반적으로 적정하지만, 개선점으로 계량지표에서 설명되지 않은 부분을 중심으로 비계량적 성과 내용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요사업별로 자체평가 결과 및 경영평가단의 지적이 제시되었는데, 그에 대한 환류활동은 적절히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 계량지표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설정되었다. 지표 개선안 적용이 쉽지 않다는 한계점은 있지만, 향후 개선 방향으로 인증통과율 향상이 안전도 향상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 재검토하고,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평가할 수 있는 창의적 지표를 장기적 관점에서 개발할 필요가 있다.

(1)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은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 기관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함께 대표적인 청소년 관련 공공기관이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청소년상담 전문인력의 체계적 연수교육, 국가자격제도인 청소년상담사의 보수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한편, 기관은 청소년 수련활동 전문인력의 체계적 연수교육, 국가자격제도인 청소년지도사의 보수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기관은 국립청소년수련시설 다섯 곳을 직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인증하고 청소년 수련시설 점검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기관은 청소년 해외봉사 및 국제교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 기관은 4단계를 통하여 주요사업을 도출하였다. 즉, 1단계에서는 SWOT 분석을 통해 2개의 전략목표를 설정하였고, 2단계에서는 전략과제와 설립목적을 고려하여 6대 핵심업무를 도출하였고, 3단계에서는 6대 핵심업무에 대한 우선순위 평가를 실시하여 3대 주요사업을 선정하였고, 4단계에서는 주요사업의 정의, 환경, 범위, 자원비중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주요사업 도출과정은 타당하며, 특히 6대 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인력 및 사업비 비중을 제시한 점은 높이 평가된다.
- 기관은 각 주요사업별로 다양한 성과지표 Pool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SMART 분석을 통해 사업별로 계량 및 비계량 지표를 설정하였다. 그 결과 [주요사업 1] 청소년역량 증진 사업 경우는 2개 계량지표와 1개 비계량지표를, [주요사업 2] 청소년활동 안전강화 사업 경우는 3개 계량지표와 1개 비계량지표를, [주요사업 3] 청소년활동 참여확산 사업 경우는 2개 계량지표와 1개 비계량지표를 설정하였다. 나아가 각 사업별로 예산 및 조직 차원의 추진체계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추진체계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 한편, 주요사업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점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각 주요사업과 조직구조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주요사업 성과와 담당 부서 평가를 연계시켜 부서별 책임경영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요사업별로 계량지표가 다수 설정된 반면 비계량지표가 1개씩만이 설정되어 있는데, 향후 비계량지표를 다양하게 설정함으로써 계량지표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2)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가?

- 첫 번째 사업인 청소년역량 증진과 관련하여,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따른 ‘청소년 진로활동’ 특화모델 30종을 신규로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한 점은 높이 평가된다. 또한 국립수련원을 적극 활용하여 참여인원과 운영횟수를 증가시키고, 민관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다양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규 활동모델을 개발하여 운영한 점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NCS 기반 직무능력별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현장 지도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연수온라인 시스템을 대폭 개선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한 점도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두 번째 사업인 청소년활동 안전강화와 관련하여, 기관이 청소년수련활동인증과 관련한 법적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인증제 홍보를 통하여 인증보유 기관을 크게 확대한 점은 높이 평가된다. 또한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청소년활동 안전 전담조직인 청소년활동안전센터를 출범시키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였고 실제 국립시설 안전사고율 감소와 같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세 번째 사업인 청소년활동 참여확산과 관련하여, 자기주도적 포상제 운영체계를 개선하여 실제 참여인원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점도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소년활동 참여와 관련한 우수모델 및 사례를 발굴하여 이를 적극 홍보하고, 세계청소년자원봉사의날 등 다양한 청소년 행사를 운영함으로써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문화를 강화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한편, 주요사업 집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국립수련시설 운영이 기관의 핵심주요기능 중 하나인 점을 고려할 때

그 운영성과 내용이 보다 적극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특히, 수련시설 참가자 현황, 참가자의 참가전후 역량 변화 등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자원봉사시스템(Dovol)의 고도화가 청소년 개인 정보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파악 및 개입으로 인식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시스템 관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을 현재도 하고 있지만 향후에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3) 주요사업별 비계량적 성과는 적절한 수준인가?

- 첫 번째 사업인 청소년 역량증진과 관련하여, 고품질 청소년 활동 확산을 위해 신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러한 프로그램을 민간청소년수련시설에 보급한 점은 높이 평가된다. 또한 NCS 능력단위별 학습모듈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교육과정의 내용을 충실히 하고, 현장컨설팅 등 다양한 방법의 활용을 통하여 현장지도자의 전문성을 강화한 점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 두 번째 사업인 청소년활동 안전강화와 관련하여, 인증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인증위원회의 법률 근거를 마련하여 인증제도의 안정성을 높이고, 인증신청 컨설팅 교육의 강화를 통하여 실제 인증신청 건수를 증가시킨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안전센터를 출범시킴으로써 청소년활동 안전 문화 확산 및 안전점검을 체계화하여 국민들의 불안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한 점도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세 번째 사업인 청소년활동 참여지원과 관련하여, 자기도전 포상제 운영기관을 확대하고 활동안전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저연령 청소년의 자기주도형 활동 참여확대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한 점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전국대회를 개최함으로써 189개 참여위원회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분산된 청소년 참여기구를 통합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 점은 높이 평가된다. 그리고 청소년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실제 높은 수용률을 달성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한편, 비계량적 성과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주요사업 1] 등에서 비계량적 성과가 주로 계량 지표를 부연 설명하는 형태로 제시되어 있는데, 향후 비계량적 성과는 계량지표에서 설명되지 않은 내용을 중심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4) 주요사업별 환류활동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가?

- 3대 주요사업별로 PDCA 체계에 근거하여 자체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부서 및 개인 단위의 성과관리체계(BSC, MBO)를 운영한 점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특화된 모델 개발의 필요성이 자체평가 결과로 제시되고 그에 따라 환류활동이 이루어지는 등, 자체평가 관련 환류활동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 2015년 경영평가단의 지적사항으로 전국 청소년수련시설 안점점검 강화의 필요성, 청소년 수련시설 안전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정보 공유 채널 확대 필요성, 청소년 국제교류 참여기회 확대 필요성, 청소년 인성활동 강화 필요성 등이 제시되었는데, 지적사항과 관련한 환류활동이 적절하게 수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5) 주요사업별 범주의 계량지표의 구성 및 목표 수준은 적정한가?

① 기관의 설립목적(임무)과의 연계성 및 반영 정도

- 기관은 4단계의 분석과정을 거쳐 설립목적 및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3개의 주요사업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주요사업별로 인력 및 예산 비중을 고려하여 2~3개의 계량지표를 설정하여 총 7개의 계량지표를 설정하였다. 이 중 '효과성 검증 사업수 증가율'과 '안전사고 가중지수' 경우는 인력 및 예산의 비중이 타 지표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한계점은 있지만, 이러한 계량지표 설정은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 한편, 계량 지표와 관련하여 당장 적용은 어렵지만 향후 개선 방향으로 다음

과 같은 점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청소년활동 안전강화 사업과 관련하여 인증심사 통과율이 높은 것이 높은 성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청소년활동 참여확산과 관련하여 봉사활동 및 포상활동 참여인원과 같은 국가관리 대상 지표가 아니라,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활동을 평가하는 창의적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② 주요사업 계량지표별 목표 수준 설정의 적정성

- 기관은 총 7개의 계량지표가 설정하였는데, 각 지표들에 대해 전년 대비 도전적인 목표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지도자 연수 수료인원의 경우 2014년 대비 2,000명 증가라는 매우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증심사 통과율이 높다는 것이 안전 강화 지표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재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

③ 지표구성의 체계화, 도전적 목표 설정 등 지표 개선 노력의 적정성

- 기관은 2014년에 기존 지표를 개선하여 장기적 사업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성과중심 지표를 설정하였기에, 2015년에는 전년대와 동일하게 지표를 설정하였다. 그에 따라 2015년에는 지표개선을 위한 특별한 노력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지표개선과 관련한 전년도 평가단 지적사항과 그에 대한 기관의 향후 대응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은 기관의 장기적 발전에 효과적일 것이다.
- 주요 사업별 추진계획, 집행 실적, 성과 및 환류 활동, 그리고 주요사업범주 전체 지표 구성의 적정성에 대해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주요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을 위한 기관의 노력을 “B⁰”로 평가한다.

② 청소년의 역량개발 및 건강 성장 지원

(1)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효과성 향상 성과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난이도 계수	득점
(당해연도 검증 사업수 - 전년도 검증사업수) /전년도 검증사업수	목표부여 (편차)	최고:0.524 최저:0.034	0.530	100	6	0.9	5.400

나. 평가내용

- 청소년활동(학교단체 시범수련활동, 소외청소년지원, 특성화캠프) 사업에 대한 사전·사후 효과유의성을 측정하여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고자하는 지표로서 전년도 청소년활동 효과유의성 검증 사업 수 대비 당해연도 청소년활동 효과유의성이 검증된 사업 수를 목표부여(편차)로 평가하였다. '15년도 청소년수련활동 효과성 향상 실적은 0.530으로 최고목표 0.524를 상회하여 평점 100점, 가중치 6점 중 5.4점을 득점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

- 청소년활동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요대상층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대상별·특성별 특화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청소년활동 역량개발 모델 연구 및 지도역량 강화 등의 꾸준한 노력을 통하여 '15년에는 전년대비 53.0%(124개) 증가한 358개의 사업에서 효과유의성이 검증되었다.

라. 추세분석

- 효과유의성 검증 사업은 '11년도부터 측정하였으며, 검증된 사업 수는 '11년 132개, '12년 175개, '13년 183개, '14년 234개, '15년로 358개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효과유의성 검증사업 전년대비 증가율은 '12년 0.326, '13년 0.046, '14년 0.279

수준이었으나 '15년 0.530으로 대폭 상승하였다.

- 과거 4개년 및 당해 연도 실적

항목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년대비 순증가 수	-	-	43	8	51	124
효과성 검증사업 수	-	132	175	183	234	358
실적 (전년대비 증가율)	-	-	0.326	0.046	0.279	0.530

(2) 청소년지도자 전문성 제고 성과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난이도 계수	득점
(당해연도 전문연수 수료인원 -전년도 전문연수 수료인원) /전년도 전문연수 수료인원	목표부여 (편차)	최고:0.849 최저:0.015	0.855	100	3	0.9	2.700

나. 평가내용

- 기관의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 확대를 통해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활동하는 지도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전년대비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 수료인원의 증가 실적을 목표부여(편차)로 평가하였다.
- '15년도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 수료인원은 4,407명으로 전년대비 2,031명이 증가하여 증가율 0.855를 달성하였다. 증가율은 최고목표 0.849를 상회하여 평점 100점, 가중치 3점 중 2.7점을 득점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 항목별 원인

- 각 국립수련시설(중앙, 평창, 고흥, 김제, 영덕)별로 특성화된 연수과정의 확대 운영과 더불어 연수 전담부서를 2개 부서(기획/운영)로 확대하여 늘어난 연수 과정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하는 노력을 하였다.

- 특히 전년과 비교하여 '13년 중반에 개원한 김제센터와 영덕센터의 연수기능이 정상화 단계에 올라서고 있으며 연수운영 조직을 확대한 중앙수련원 청소년지도자연수센터의 현장 밀착형 연수과정 개발 및 운영 확대를 통해 4,407명의 수료인원 실적을 달성하였다.

라. 추세분석

-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 수료 인원은 '1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증가율 또한 '13년 0.073에서 '14년 0.432, '15년 0.855로의 성장추세를 보이고 있다.
- 과거 5개년 및 당해 연도 실적

항목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년대비 순증가 수	180	-291	329	113	717	2,031
수료인원	1,508	1,217	1,546	1,659	2,376	4,407
실적 (전년대비 증가율)	0.136	-0.193	0.270	0.073	0.432	0.855

③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청소년활동 확산

(1) 청소년활동 신뢰성 향상 성과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text{인증 프로그램 확대 성과} \times 0.5 + \text{인증위원회 심사통과 증대 성과} \times 0.5$ $\text{인증 프로그램 확대 성과} = \frac{\text{인증프로그램 보유기관}}{\text{청소년활동 기관}}$ $\text{인증위원회 심사통과 증대 성과} = \frac{\text{인증위원회 심사통과 프로그램}}{\text{당해 연도 인증신청 프로그램}}$							
세부지표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4)	난이도 계수	득점
인증프로그램 확대성과	목표부여 (편차)	최고:0.594 최저:0.427	0.535	71.376	2	0.9	2.408
인증위원회 심사통과 증대성과	목표부여 (편차)	최고:0.761 최저:0.513	0.644	62.378	2		

※ 단, 가중치는 해당 지표의 전체 가중치에서 각 세부지표에 할당된 가중치를 의미함

나. 평가내용

- 국가인증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확대 및 보유기관을 늘려 청소년활동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지표로서 '인증 프로그램 확대성과'와 '인증위원회 심사통과 증대성과'를 목표부여(편차)로 평가하여 각 0.5의 비율로 지표의 가중치 4점에 반영하였다.
- '15년도 인증 프로그램 보유기관은 전국 청소년수련시설 797곳 중 426개 기관으로 최고목표 0.594 보다 낮은 0.535의 실적으로 평점 71.376점을 달성하였고, '15년도 인증위원회 심사통과 실적은 '15년도 인증신청 프로그램 2,019개 중 1,301개 프로그램이 심사통과 되어 최고목표 0.760을 하회하는 0.644의 실적으로 평점 62.378점을 달성하였으며 두 세부지표를 종합하여 가중치 4점 중 2.408점을 득점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다. 항목별 원인

- 인증프로그램 보유기관의 확대를 위해 현장 중심의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매뉴얼·영상 등을 활용한 다각적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수련시설 운영담당자 맞춤형교육 확대 등을 노력하여 인증프로그램 보유기관 비율 0.535를 달성하였다.
- '14년도 의무 인증제 도입과 사회적 안전요구 증대에 따른 심사강화로 낮아진 인증프로그램 심사통과율의 향상을 위해서 강화된 심사기준에 대상기관들이 잘 적응할 수 있는 노력들을 진행하였다. 현장 컨설팅 박람회와 설명회를 확대 운영하고 대상별 맞춤형 교육들을 강화하는 노력을 통해 인증프로그램 심사통과율 0.644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라. 추세분석

- 청소년수련활동 인증프로그램 보유기관 수는 '10년 208개에서 '15년 426개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인증프로그램 보유기관 비율도 '10년 0.288에서 '15년 0.535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청소년수련활동 인증프로그램 심사통과 비율은 '10년 0.782, '11년 0.736, '12년 0.768로 높은 수준이었으나 '13년 0.607, '14년 0.536으로 감소하였고 '15년 다시 0.644로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 과거 5개년 및 당해 연도 실적(인증 프로그램 확대 성과)

항목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인증프로그램 보유기관 수	208	223	239	294	402	426
청소년수련시설 수	721	738	753	781	787	797
실적(인증프로그램 보유비율)	0.288	0.302	0.317	0.376	0.511	0.535

- 과거 5개년 및 당해 연도 실적(인증위원회 심사통과 증대 성과)

항목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심사통과 프로그램 수	266	242	212	783	1,553	1,301
인증신청 프로그램 수	340	329	276	1,291	2,895	2,019
실적(심사통과 비율)	0.782	0.736	0.768	0.607	0.536	0.644

(2) 청소년수련활동 안전성 강화 성과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난이도 계수	득점
안전사고 가중지수 /청소년수련활동 참여인원	목표부여 (편차/하향)	최고:0.000 최저:0.123	0.017	88.847	3	1.0	2.665

나. 평가내용

- 청소년수련활동 참여 청소년의 안전사고 감소를 통하여 청소년수련활동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립수련시설로서 민간수련시설을 선도하고자 하는 지표로, 청소년수련활동 참여인원 대비 발생한 안전사고의 유형별 분류에 따른 가중지수를 목표부여(편차/하향)로 평가하였다.
- '15년도 청소년수련활동 참여인원은 '14년 대비 16,908명 증가한 데 비하여 안전사고 가중지수는 '14년 대비 28.5점 감소하여 '14년 실적 0.058보다 향상된 0.017의 실적을 달성하였고 평점 88.847점으로 가중치 3점 중 2.665점을 득점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 항목별 원인

- 청소년 수련활동의 안전사고 감소를 위해 청소년활동 안전센터라는 조직을 신설('15년 4월)하여 전국 청소년수련시설 전반의 안전강화를 위해 안전협의체 구성, 담당자 교육 및 홍보를 강화 노력함과 동시에 기관 내 노후 시설 및 장비 보완, 전 직원 및 현장 활동지도 담당자 대상 시설 및 활동에 대한 안전교육 등 안전사고 발생 감소를 위한 기관 차원의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통하여 안전사고 가중지수는 전년대비 대폭 감소하였다.

라. 추세분석

- 청소년활동 참여인원은 '10년 84,188명, '11년 86,680명, '12년 88,511명, '13년 92,016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으나 '14년 세월호 사고 영향으로 76,468명

으로 감소하였다가 '15년 다시 93,376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 안전사고 가중지수는 '10년 101점, '11년 114점, '12년 63.5점, '13년 126점으로 등락이 있었으나, '14년부터 44.5점, '15년 16점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과거 5개년 및 당해 연도 실적

항목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안전사고 가중지수	101.0	114.0	63.5	126.0	44.5	16.0
청소년수련활동 참여인원	84,188	86,680	88,511	92,016	76,468	93,376
실적(가중지수 감소 성과)	0.120	0.132	0.072	0.137	0.058	0.017

④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활동참여 지원 확대

(1) 자기주도 청소년활동 참여 성과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text{자원봉사 활동참여 성과} \times 0.5 + \text{성취포상 활동참여 증대 성과} \times 0.5$							
$\text{자원봉사 활동참여 증대성과} = \frac{\text{당해연도 봉사인원} - \text{전년도 봉사인원}}{\text{전년도 봉사인원}}$							
$\text{성취포상 활동참여 증대성과} = \frac{\text{당해연도 포상인원} - \text{전년도 포상인원}}{\text{전년도 포상인원}}$							
세부지표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4)	난이도 계수	득점
자원봉사 활동참여 증대성과	목표부여 (편차)	최고:0.099 최저:0.091	0.101	100	2	1.0	4.000
성취포상 활동참여 증대성과	목표부여 (편차)	최고:0.249 최저:0.114	0.250	100	2		

※ 단, 가중치는 해당 지표의 전체 가중치에서 각 세부지표에 할당된 가중치를 의미함

나. 평가내용

- 자기주도형 청소년활동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지표로서, '자원봉사 활동참여 증대성과'와 '성취포상 활동참여 증대성과'를 목표부여(편차)로 평가하여 각 0.5의 비율로 지표의 가중치 4점에 반영하였다.
- '15년도 '자원봉사 활동참여 증대'는 참여인원 3,505,371명으로 최고목표 0.099를 상회하는 0.101의 실적을 달성하여 평점 100점으로 가중치 2점 만점을 득점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 '15년도 '성취포상 활동참여 증대'는 참여인원 1,310명으로 최고목표 0.249를 상회하는 0.250의 실적을 달성하여 평점 100점으로 가중치 2점 만점을 득점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다. 항목별 원인

- 청소년의 봉사활동 참여 확대를 위하여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으로의 자원봉사 참여기록 자동전송시스템의 활용을 확대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으로 봉사활동 참여인원 수는 3,505,371명으로 전년대비 10.1% 증가하였다.
- 성취포상 활동참여 확대를 위하여 기관에서는 저연령 청소년 참여확대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및 제도개선 등의 노력으로 '15년 포상인원 1,310명을 달성하였고 이는 전년 대비 25% 상승한 성과이다.

라. 추세분석

-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정보서비스 시스템에 등록된 참여인원 수는 '09년 2,273,068명에서 '15년 3,505,371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청소년성취포상 활동참여 증가율은 '10년 0.148, '11년 0.451, '12년 0.370, '13년 0.258이었으나, '14년에 세월호 사고 영향으로 청소년활동이 급감하여 - 0.082로 대폭 감소하였다가 '15년 0.250으로 다시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다.

- 과거 5개년 및 당해 연도 실적(자원봉사 활동참여 증대 성과)

항목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년대비 순증가 수	171,140	205,082	111,554	146,615	276,351	321,561
자원봉사 활동참여 인원	2,444,208	2,649,290	2,760,844	2,907,459	3,183,810	3,505,371
실적(전년대비 증가율)	0.075	0.084	0.042	0.053	0.095	0.101

- 과거 5개년 및 당해 연도 실적(성취포상 활동참여 증대 성과)

항목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년대비 순증가 수	59	206	245	234	-94	262
성취포상 활동참여 인원	457	663	908	1,142	1,048	1,310
실적(전년대비 증가율)	0.148	0.451	0.370	0.258	-0.082	0.250